

ISSN 1599-7863

박물관사람들

2019년 겨울 · 68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강화 오두 둔대

박물관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2019년 겨울 ■ 68호 Contents

기획/강화	섬, 수도가 되다	4
	싸목싸목 가던 길 멈춰 서서	8
	은퇴한 요새	12
문화칼럼	내몽골 초원에서 만난 고려청자	16
회원마당	우리나라만의 가구	20
	그것을 알고 찍었더라면	22
박물관 탐방	적의에 대삼작노리가 달고 – 국립고궁박물관	24
전시실 산책	신유총석정	27
박물관회 소식	2020 박물관 특설강좌 안내	31
	2020 박물관 연구 · 테마 강좌 안내	32
숨은 전시	네가 있는 이유는	33
국립중앙박물관회는		34

발행일 2019년 12월 5일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전화 (02)2077-9790~3
 기획 이재범 편집회원 강현자·계운애·김문숙·문정원·서유미·정은정 진행 서승연 디자인 문화공감 (02)2266-1897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fnmk.org

회지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섬, 수도가 되다

“선조 태조 이래 200년을 이어온 수도 개경을 버리고 어찌 사직을 지키겠단 말이요? 천도를 하면 본토에 남은 백성은 어찌하란 말이요?”

“그렇다면 몽골에 맞서 개경을 지킬 방책은 있소? 있다면 말해 보시오. 서둘러 천도하여 항전을 준비해 왕조를 지켜야 하지 않겠소?”

1232년 2월, 고려 조정은 ‘개경 사수’와 ‘강화 천도’를 주장하는 중신들의 열띤 논쟁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해 초여름, 무신정권의 수장 최우는 강화 천도를 반대하는 중신들을 처형하고 천도를 거부하는 고종을 위협하여 강화 천도를 강행했다. 천도는 빠르게 진행됐다. 고종은 천도 결정 한 달 만에 강화로 가는 배에 올랐다. 『고려사』에는 강화로 가는 처참하고도 험난한 그때의 상황이 생생하게 적혀 있다.



강화 고려궁지

“드디어 천도하니 때마침 장맛비가 열흘이나 계속되어 진흙에 정강이까지 빠졌다. 사람과 말이 얽어지고 넘어졌다. 벼슬아치와 양가 부녀자들도 신발을 벗고 갈 지경이었다. 환과고독鰥寡孤獨은 갈 바를 잃고 통곡하는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벼슬아치와 홀아비, 과부, 고아, 자손 없는 노인이 통곡하며 들어갔던 강화에서의 ‘강도江都 38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강화는 느닷없이 고려의 수도가 된 것이다.

강화로 천도한 이후 최우는 2000명의 군사를 동원해 강화에 궁궐과 관청 건물을 지었다. 궁궐은 개경의 궁궐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평지가 아닌 산 언덕에 짓는 등 개경의 궁궐과 비슷했다. 연경궁, 강안전, 수창궁 등 건물의 이름도 개경에서 쓰던 이름을 그대로 옮겨 붙였다. 심지어 북산이라 불리던 궁궐 뒷산의 이름을 송악산으로 바꾸기도 했다. 궁궐의 신축과 함께 도성을 방어하기 위한 산성도 개경과 비슷하게 내성, 중성, 외성 3중으로 축조되었는데, 이중 내성이 현재의 강화산성이다. 원래는 흙으로 쌓았으나 1677년(숙종 3년)에 현재와 같은 석성으로 고쳐 쌓았다. 4개의 대문, 4개의 암문, 2개의 수문, 2개의 성문장청城門將廳이 있었다. 현재는 동문 망한루, 서문 침화루, 남문 안파루, 북문 진송루 등 복원된 4개의 문과 암문이 남아 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북문에서 개경의 송악산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강도 시대로 돌아가 진송루에 올라서 두고 온 개경을 하염없이 바라봤을 고종의 쓰라린 마음을 헤아려 본다.

현재 고려 궁궐과 성은 남아 있지 않다. 1270년 고려가 몽골과 화친을 맺고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몽골의 요구로 인해 궁궐과 민가는 불태워지고 성도 모두 헐렸기 때문이다. 고려궁지에는 터만 남아 있을 뿐 고려 궁궐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고 조선시대 유수부 동헌과 이방청, 외규장각 등이 남아 있다. 이름만 고려시대 것인 입구의 승평문이 왜



승평문



선원사지

그리도 안쓰러운지 치열했던 강도 38년의 역사가 너무 허무하다.

천도를 강행한 최우는 민심을 수습하고 대몽항쟁으로 민심을 단결하고자 강화에 선원사를 창건했다. 금불상을 500기나 모신 국찰이었던 만큼 그 규모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당시 순천 송광사와 함께 2대 사찰로 손꼽힌 이곳에서 부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팔만대장경을 판각했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아 확실하지는 않다. 현재로서는 강화의 대장도감 본

사와 남해의 대장도감 분사에서 각각 조판한 후 조선 초기까지 선원사에 보관했다고 보고 있다. 어쨌든 팔만대장경 조판을 총괄했던 대장도감이 강화에 설치되었고 오랫동안 선원사에서 보관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선원사가 팔만대장경과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팔만대장경에 새긴 글자 수는 무려 5200만 자로 추정되는데 오탈자가 거의 없이 완벽하며 글씨가 고르고 정밀하여 세계적으로 훌륭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장인 한 사람이 경판 한 장을 새기는 데 꼬박 2~3주가 걸렸다고 하며 제작 과정에 동원된 연인원은 13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 많은 인력이 힘을 합쳐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이 16년이라니 고려 조정은 팔만대장경을 만드느라 막대한 돈과 인력을 쏟아부은 셈이다. 그 돈은 백성들의 세금으로 충당했을 것이고 부역 또한 백성들의 몫이었으니 전란 중 백성들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이 간다.

하필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고 몽골군에 의해 전 국토가 초토화되어 백성들이 무참히 죽어가는 아비규환인 그때, 대규모의 사찰을 짓고 국책 사업을 벌였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아무리 종교적 이유와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지만 전란 중에 보살피야 할 백성보다 우선이 있는지 순순히 수긍할 수가 없다. 선원사지의 공허 위에 씩씩한 마음을 엿는다.

선원사지에서 느꼈던 씩씩한 마음은 고려 23대 왕 고종이 묻힌 흥릉에서도 이어진다. 왕릉이라 보기도 어려울 만큼 초라하고 쓸쓸하다. '왕의 능'임을 알리는 안내판과 비석이 없었다면 민묘民墓나 다름없어 보였다. 고종은 고려 왕 중 재위 기간이 가장 길었으나 재위 기간



흥릉



난간돌



고종 비석

46년 내내 무인들이 정치적 실권을 쥐고 있었으며 대외적으로는 거란과 몽골의 침입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었다. 1259년 태자를 몽골에 보내 몽골과 화친을 맺었으나 대몽항쟁이 끝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해 바로 숨을 거둬 강화에 묻혔다.

흥릉은 원래 높게 쌓은 3단의 축대로 이루어져 맨 아랫단에 정자각, 2단에는 석인상, 맨 윗단에 봉분을 배치한 형식으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으며 능 주위에는 난간으로 두른 돌의 일부가 남아 있다. 능의 네 모퉁이에 석수가 1구씩 서 있었으며 돌담의 흔적이 있었으나 없어졌고, 현재는 석인상 두 쌍이 남아 있다.

물론 전란 중인지라 제대로 격식을 갖추기 어려웠겠지만, 살아서도 무인정권에 휘둘리던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왕을 죽은 후라고 대접해 잘 모셨을 리는 없었을 거라 짐작하니 고종의 신세가 초라하고 가엾다.

못다한 무엇이 남았기에 그리도 힘든 세월을 보낸 강화에 머물고 있을까? 왜 후대의 왕들은 고종의 묘를 개경으로 옮기지 않았을까? 쓸쓸히 멀리 강화 시내를 내려다보며 흥릉은 영욕으로 얼룩진 고려사를 잊지 말라고 조용히 그리고 무겁게 말하고 있다.

흥릉 못지 않게 강도 시절의 상흔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탑이 있다.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봉은사지 오층석탑으로도 불린다. 강화로 천도하면서 개경에 있던 봉은사와 똑같은 이름의 사찰을 세우고 개경의 봉은사에서 옮겨다 놓았다. 발견 당시 무너져 있었으며, 주변에 흩어져 있던 석재를 수습하여 1960년 지금의 모습으로 세웠다. 3층 이상의 몸돌과 5층의 지붕돌, 상륜부가 모두 사라진 상태다. 왜소한 데다 여기저기 깨져 성한 곳이 없는데 보물이라 한다. 의아하다. 강화 유일의 고려시대 탑이라 그런지 개경에서 가져온 탑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다. 단지 이 탑이 여기 서 있는 이유, 이 탑이 견뎌냈을 영욕의 세월, 부서지고 깨진



장정리 오층석탑

채 간신히 버티고 서서 아픈 역사를 전하고 있음에 가치를 두고 싶다. 덩그러니 외딴 곳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이 안쓰럽다. 고종의 흥릉만큼이나 강도 시절의 아픈 역사를 온몸에 새긴 오층석탑은 쓰라림 그 자체다.

강화를 아름다운 석양과 갯벌을 보기 위해 놀러 가는 섬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 섬에서 벌어진 고통과 치욕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고 바라보는 것은 많이 다르다.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강화도의 참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강화에 새겨진 상흔이 무뎠던 마음에 무겁게 얹혀진다. 🐼

계운에 회원

짜목짜목 가던 길 멈춰 서서

* 천천히

‘산세가 들먹이며 우뚝 솟아 눈앞에 깔린 대해에 별처럼 뜬 섬을 굽어본다.’
(김정호, 『대동지』)

풍경소리가 빛나는 고요를 감아올립니다.

마니산 너른 품에서 태어나 서해를 트락으로 삼은 강화 정수사의 아침입니다. 아침 햇살이 툇마루 깊숙이 들어와 대웅보전 사분합문 창호에서 피어나는 꽃들에게 인사합니다. 소담스럽게 살아나는 줄기 위에 흐드러진 모란과 연꽃 조각은 극락세계로 가는 문인 것만 같습니다. 통나무 판을 정교하게 파내 꽃을 투각한 통판 투조기법을 가까이 바라봅니다. 다시 멀리서 바라보면 양 옆간의 단정한 창호와 더불어 가섭존자의 염화미소가 떠오릅니다. 이십전십, 차고 넘치지 않는 조화로움이 정면 3칸 창호의 미학입니다.

아담한 절집 작은 법당에서 공간의 흐름을 따라 움직여 봅니다. 천장을 가득 메운 연등 아래 숨어 있는 우물천장은 반자 청판에 연화 단청이 숨을 쉽니다. 수평이 아닌 서까래 방향을 따라 비스듬히 자리한 경사 천장은 천장 선을 사선으로 걸어 연꽃을 입체적으로 조각하고 천장널에는 봉황을 채워



정수사

그렸습니다. 매우 화려한 이 천장은 고주 높이에 맞춰 내부 공간을 시원스럽게 만드는 빗천장으로 정수사 법당 건축 공간에서 가장 감탄스럽습니다. 천장을 비껴 창호에 그려진 빛 그림자를 맞으며 오래된 고택의 대청마루를 닮은 툇마루에 섭니다. 이곳은 조선 후기에 더해진 개방 공간입니다. 건물 뒤쪽은 기둥 위 공포의 짜임새가 조선 초기 간결한 모습 그대로이지만 툇마루 쪽 짜임새는 공포에 새겨 넣은 장식적인 연꽃이 화려합니다. 현판 좌우에 잡기를 막아주는 벽사 귀면의 모습이 재미있고, 귀면이 있는 공포의 출목과 출목 사이에는 좁고 긴 노란 판재가 보이는데, 순각 반자 또는 포반자라 합니다. 다양한 천장의 모양새가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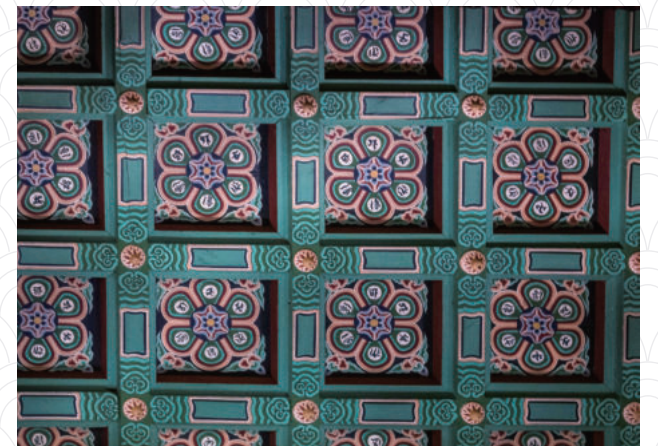
정수사 대웅보전 빗천장

좋게 모여 있는 공간이 사랑스럽습니다. 정면 3칸 측면 4칸인 맞배지붕의 용마루는 법당 내부 공간에 맞춰 중심이 놓입니다. 용마루에서 처마 선까지 경사진 앞면이 뒷면보다 길고, 지붕 선을 따라 비바람을 막는 풍판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내부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공간의 미학이 느껴지지만 드러난 위용도 여유가 있습니다.



정수사 대웅보전 순각반자와 귀면

절집 주변에는 커다란 바위들이 강건한 지킴이 역할을 하고, 법당 기단 한편 무심한 바위 석축에도 세월이 묻어납니다. 정수사(靜修寺)는 신라 선덕여왕 8년에 창건했고, 세종 5년에 중수한 함허대사가 맑은 물이 솟아난다고 정수사(淨修寺)라 고쳤습니다. 마니산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에서 연결된 진입로 대신 숲길 계단을 통해 다시 정수사로 들어섭니다. 서해바다와 멀리 섬이 보입니다. 마니산은 강화와 별개의 섬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족산까지 이어진 넓은 들녘은 조선 숙종 때 생겨난 간척지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전쟁의 최전방이었던 강화는 적의 침입을



정수사 대웅보전 우물천장



강화 성공회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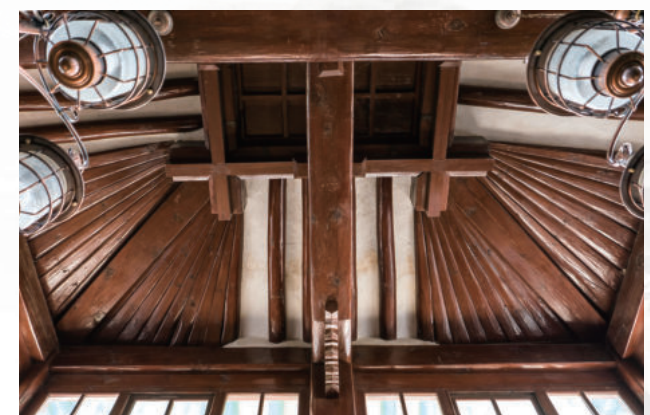
강화 성공회성당 내부

막기 위한 방편으로 해안가에 가시가 날카로운 탱자나무를 심어 출입을 어렵게 했다고 합니다. 정수사 길목 도로변에 400년 된 천연기념물 탱자나무가 서 있습니다. 이곳이 해안이었다는 이야기에 무게가 실립니다. 세월이 밀려 제 몸을 어렵게 지탱하며 살아가는 탱자나무와 강화의 역사가 겹쳐집니다.

고종 30년 1893년 3월 통제영학당은 수군을 해군 편제로 개편하고 갑곶나루에 인재 양성을 위한 서양식 해군사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발발한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의 영향으로 폐교되었고, 영어와 군사 교육을 담당했던 영국인 교관들이 1896년 귀국하면서 관사와 부지는 성공회 선교사들이 인수하였습니다. 당시 강화도는 외국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였기에 선교를 독점할 수 있었던 성공회에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광무 4년(1900) 대한 성공회 초대 코프 주교는 강화 성 언덕에 구원의 방주를 상징하는 강화성당을 건립했습니다. 서쪽인 뱃머리에 외삼문과 종루를 겸하는 내삼문을 설치하고 중앙에 성당을 배 후미에 사제관을 배치하였는데, 공간 구성이 사찰의 가람 배치와 닮았습니다. 성당 기둥의 주련과 커다란 범종, 마당의 100년 이상 된 우람한 보리수도 분위기를 더합니다. 이층의 팔작지붕과 ‘천주성전’ 편액에서 대웅전이 떠오르고, 단출하고 낮은 담장과 크고 작은 돌을 엮은 모자이크 같은 정교한 석축이 정겹습니다. 신도 수용 규모에 맞게 정면 4칸 측면 10칸으로 지어진 큰 건축물이 당시 백성들에겐 반야용선처럼 보여 친근했을 것 같습니다. 용마루와 범종의 십자가, 태극무늬와 한 몸을 이룬 문 위의 십자가도 조화롭게 어우러져 우리네 삶과 함께하려고 애쓴 사제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특히 부연부리초에 십자가로 단청문양을 그린 감각이 돋보입니다.

예배 공간인 실내로 들어갑니다. 1층 부분에 전실이 있고, 이층이 아니라 중층인 서양 전통건축 양식이 보입니다. 두 줄로 높게 늘어난 기둥 바깥쪽에 회랑을 설치하였으며, 안쪽 중층에는 제대와 신도석을 두고 자연채광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유리창이 화사한 바실리카 양식입니다. 백년 이상 된 백두산 적송을 어렵게 구해와 도편수가 전통 방식으로 일일이 끼워 맞춰 지어서 굵은 고주와 들보, 도



강화 성공회성당 눈썹천장

리들은 웅장하고 견고합니다. 바닥의 목재 장마루는 발걸음을 경건하게 만듭니다. 건축 당시 영국에서 들어왔다는 아치형 출입문의 고풍스러운 잠금장치와 유니언 잭 문양도 우리 목재와 어울림이 절묘합니다. 세례 받는 마음가짐을 담은 팔각 세례대에 적힌 글자를 만져 보며 강화 산 화강암의 촉감을 느낍니다. 다시 돌아 본 건물 양쪽 측면 칸에서 눈썹천장을 발견합니다. 복잡하게 구성된 팔작지붕 합각부는 외기에 걸린 서까래 말구가 안쪽에서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외기 부분에만 크기가 작은 우물천장을 만드는데 이것을 눈썹천장이라고 합니다.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된 연등천장 양 끝을 장식하는 눈썹천장이 애교스럽습니다.



남문 한옥

외삼문 솥을대문을 나오다 돌아보니 우뚝 솟은 종탑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화의 또 다른 한옥 온수리 성공회성당을 찾아가니 생각처럼 솥을대문에 종각이 있어 지금도 종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수리 바닷가 마을에도 아주 아담한 성공회성당이 있어 한옥 성당의 맥을 살필 수 있습니다.

강화의 고택을 살피다 찾아간 남문 한옥은 1928년에 지어져 한때 김구 선생과 인연을 맺었던 곳입니다. 오랜 기간 빈집으로 방치돼 오다 새 주인을 만나 단장 중인데 ‘기’자 구조로 누마루, 부엌, 안방, 대청, 사랑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통 가구와 오래된 물건이 인상적인 이곳은 영국풍 헤링본 무늬 마루와 마니산 문양을 낸 크리스털 유리 문, 발코니 같은 난간이 설치된 부엌 다락이 눈길을 끄니다. 영국적인 요소를 담은 강화의 근대 한옥이 일찍부터 뿌리를 내린 성공회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또한 1940년대 강화에 지어진 99칸 고택이 양철로 훼손되는 답답한 현실을 보니 긴 호흡으로 정성스럽게 복원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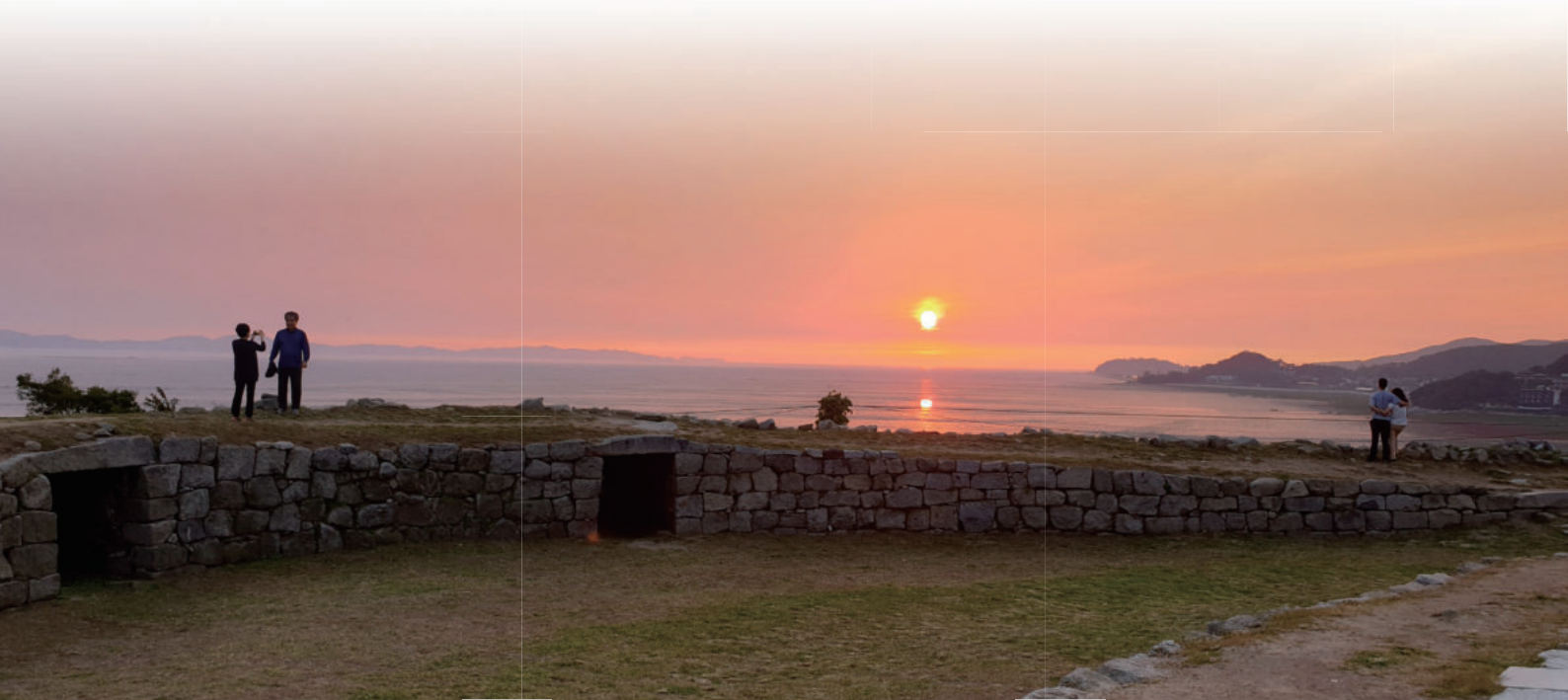
정은정 회원

은퇴한 요새

“분오리 돈대는 일출과 일몰이 다 조망되는 돈대 중 시야가 가장 넓은 곳이다. 돈대 안에서 서서 돈대의 석축 위에서 서 있는 사람들을 올려다보며 역광의 사진을 찍어보자. 오후의 느릿한 햇빛을 받으며 멀리 바다를 바라보거나 석축의 돌레를 따라 거니는 연인들의 모습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다. 돈대 위에서 사진을 찍는다면, 늦은 오후의 길게 뻗은 부드러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드넓은 갯벌과 물에 비친 햇빛의 일렁임을 한 프레임으로 잡는다면, 초현실적이며 극도로 절제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강화군에서 설치한 분오리 돈대 사진을 잘 찍는 법을 설명한 팸말에 있는 문구이다. 과연 붉은 해와 분홍색으로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두 쌍의 남녀가 좋은 사진 소재가 되어 주고 있었다. 이 아름답고 평화롭게 보이는 돈대에 이내 어둠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모두 떠나가고 이곳에는 어둡고 조용한,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평화가 올 것이다.

지어진 지 올해로 340년 된 이 돈대에서 그동안 근무했던 조선의 병사들을 생각해본다. 돈대는 적의 침입을 감시하는 망루의 역할과 대포 등을 쏘는 포루의 역할을 겸하는 군사시설이었다. 연인들이 거니는 저 자리에서 보초를 서던 어떤 병사는 지는 해를 보며 고향에 두고 온 아내나 연인을 생각하며 한숨지었을까도 모르고, 향수병이 도진 다른 병사는 남몰래 눈물 흘리기도 했을 것 같다. 그래도 석양을 보며 감상에 젖을 수 있



분오리 돈대

을 때가 그나마 좋다. 저 평화로운 풍경 속에 갑자기 낯선 배가 나타난다면 순식간에 돈대 안에는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긴장감이 가득 차면서 포병은 1층 포좌로, 나머지는 개인 병기를 들고 2층 여장 뒤에 자리잡았을 것이다.

강화에는 이런 돈대가 많기도 하다. 해안선을 따라 다니다 보면 전망이 꽤 좋을 것 같다 싶은 장소에는 돈대가 자리잡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개수는 총 54개이다. 시대를 가늠할 수 없는 한 개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축조 연도가 확실하다. 그중 48개 돈대가 숙종 5년인 1679년에 축조되었고 나머지 다섯 개 돈대도 그 이후에 쌓은 것이다. 대체 20살도 안 된 젊은 왕은 왜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돈대를 쌓았을까?

강화는 고려시대부터 중요한 곳이었다. 수도인 개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수도를 보호하는 요충지였다. 또한 세 개의 주요 하천인 한강, 임진강, 예성강 하구에 위치해 있어서 외국의 상선과 전국에서 걷은 세금을 운반하는 조운선들이 오가는데, 배들을 털기 위해 몰려드는 왜구를 막기 위해서라도 강화도에는 군사시설이 꼭 필요했다. 이런 점은 개경과 멀지 않은 한양에 도읍을 정한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면 강화는 더 중요해졌다. 여몽전쟁 당시 고려가 강화에서 38년 동안 버틴 이후로 조선시대에도 임금이 유사시에 거할 수 있는 보장지(保障之處)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겼다. 원래는 구불구불한 해안선에 농토가 적었지만 고려시대부터 계속 간척사업을 하면서 농토를 확보했고, 경기평야와 호남의 곡창지대와도 통했기에 조세를 안정적으로 걷어 들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수도와 가까워 피신하기 편했으며 강화 해협의 급한 물살과 사방에 펼쳐진 갯벌 덕에 기병 위주의 유목민족 출신 침략자들이 쉽게 넘어올 수 없었다.

정묘호란 때는 강화로 피신할 수 있었지만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인조는 미처 강화로 가지 못하고 남한산성에서 농성할 수 밖에 없었다. 그동안 청군은 강화를 집중 공략했다. 사령관인 김경징이 지리상의 이점만 믿고 무능하고 태만하게 대처하는 동안 청군은 한강과 임진강의 어선을 징발하고 김포에 있는 민가에서 목재를 떼어다가 배를 만들어 해협을 건넜다. 강화가 함락되고 그곳에 있던 왕자들을 비롯한 왕실가족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인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였다.



후애 돈대

손돌목 돈대

오두 돈대

용두 돈대

좌강 돈대

김곶 돈대

호란은 끝났지만 조선은 패전국으로서 전쟁 준비를 할 수 없는 처지라 기존의 국방시설을 보수하는 것마저도 청나라의 눈치를 봐야 했다. 하지만 효종은 북벌을 표방하면서 군비확장을 시작했다. 불가능한 꿈을 꾸던 이상주의자로 볼 수도 있지만, 삼전도의 굴욕으로 떨어진 왕실의 권위와 둘째 아들로 왕위에 오른 자신의 정통성을 지키면서도 두 번의 큰 전쟁으로 엉망이 된 군사편제를 개편할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북벌만큼 좋은 정치적 명분도 없었다. 이 시기 강화에 광성보와 덕진진이 설치되었다.

삼전도의 굴욕으로부터 42년이 지난 시점에 즉위한 숙종은 북한산성과 탕춘대성을 새로 쌓고, 한양 성곽을 보수했으며, 청주의 상당산성을 비롯한 전국의 산성을 증·개축했다. 강화해협 양안 방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건너편 김포에 문수산성을 쌓고 강화 섬 전체를 5진 7보 53 돈대를 갖춘 요새로 만들었다. 이 정도면 진정 성공한 밀리터리 마니아 아닌가 싶다.



남장 포대

지금 남아 있는 강화산성과 외성 또한 숙종연간에 석성으로 축성한 것이다. 강화나들길 코스 중에 동쪽 해변을 따라 쌓은 강화외성 위로 걷는 길이 있다. 밑으로 내려가서 성벽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북쪽 구간은 비무장지대가 멀지 않은 곳이라서 그런지 철조망으로 막혀 있고, 나머지 구간도 갯벌에 토대를 다지고 쌓은 성이라 그 밑은 끈끈한 개흙이다. 갯벌에 뿌리를 박은 돈대들도 많다. 바닷물이 들이치는 이런 질퍽한 장소에서 군인들과 백성들이 성을 쌓고 돈대를 쌓았다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그래도 역시 이쯤에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 적을 제대로 잡겠다는 이성적인 생각도 하게 된다. 숙종이 정비한 방어체계는 중간에 약간의 변화만 있었을 뿐 조선 말까지 유지될 만큼 견고했다.

적선이 강화해협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초지진에서 포를 쏜다. 초지진을 무사히 통과했다라도 이내



강화산성에서 바라본 북한

덕진진에서 대응하고 바로 건너편 김포의 덕포진에서 호응한다. 그리고 광성보를 만난다. 그리고 한강 하구에 닿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돈대들…… 여기서 쏘던 화기는 서양인을 뜻하는 ‘프랑크’에서 유래한 이름의 불랑기포였다. 이전에 사용하던 천지현황 총통은 한번 쏘고 나면 포를 끌어내 다시 앞쪽에서 장전해야 했지만 불랑기포는 모포母砲 뒤쪽에 자포子砲를 끼우기만 하면 되기에 포를 움직이지 않고도 연속 발사할 수 있어서 임진왜란 때 명나라군이 사용한 이후 조선후기 주력 화포가 되었다. 현재 강화에 있는 포대에는 불랑기포보다는 홍이포로 보이는 대포들이 더 많다. 사실 청나라가 강화를 함락시킬 때 쓴 대포가 바로 홍이포다. 이후 조선은 홍이포를 도입하여 제작하려는 노력을 하긴 했으나 실제로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파괴력은 강하지만 한 번 발사하는데 비싼 화약을 엄청나게 소모해야 했기 때문이다. 반면 불랑기포는 몇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편리하고 경제적이었기에 선택됐을 것이다. 손자병법에는 “하루”에 “천금”을 써야 십만 명의 군대를 운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군을 운용하려면 비용이 든다. 아무리 잘 만든 방어체계라도 나라가 기울어 병사와 무기와 보급을 충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무용지물. 더 강력한 신무기와 경제력을 가진 열강들이 강화해협을 통과해 북상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나라는 망했다. 천여 년 동안 역사의 흐름 한가운데 있었던 이 섬과 망국의 군사시설들은 이제는 관광객과 답사 나온 학생들로 채워진다. 적을 감시하기 좋은 곳은 전망이 트여 있어서 풍경도 참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평화지대는 아니다. 북쪽에는 비무장지대가 있고 그곳의 돈대들 중 일부는 아직도 군에서 사용하는 현역이라고 한다. 북쪽 돈대들도 하루빨리 은퇴해서 다른 돈대들처럼 평화로워지기를 빌어본다. 🌿

서유미 회원



불랑기 1·2호, 전쟁기념관

내몽골 초원에서 만난 고려청자



청자 구룡형 연적, 내몽고 고고연구소 발굴

때론 길을 잃어 혼미한 적도, 혹은 엉켜 있던 실타래가 풀리면서 짜릿한 기쁨을 맛보았던 순간도 있었지만 나에게 도자사 공부는 언제나 새롭다. 특히 몇 십 년 만의 터위 속 유리천장 아래로 직사광선이 내리쬐던 옛 국립중앙박물관(구 중앙청) 지붕층 도편실에 쭈그리고 앉아 나이만큼이나 오래전 발굴된 강진, 부안의 비색청자 수천 상자를 닦고 분류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박사과정 시절은 연구의 관심을 청자로 집중하게 된 인생의 분기점이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상자에서 어떤 파편들이 나올까 궁금하고 조바심이 나서 새벽 출근길이 설렘이었다. 그때로부터 25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유적 현장이나 박물관을 가지 않은 적이 없고, 도자기 유물을 보거나 만지지 않은 적이 없다. 자동차 트렁크엔 울퉁불퉁한 산길이나 정갈하게 노출시킨 유구 등에 맞춰 신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신발을 구비해두고 조사용 꽃삽과 각종 장갑, 줄자, 모자 등을 마치 유목민의 그것처럼 싣고 다닌다. 노마딕 Nomadic 인생이다.

2005년 여름, 중국고도자학회中國古陶瓷學會는 매년 열리는 연례 학술대회를 내몽고자치구內蒙古自治區에서 개최한다는 소식을 알렸다. 마침 내몽고 고고연구소가 집녕로集寧路 일대 원나라 시대 유적을 발굴 중이었기 때문이다. 1958년 집녕로 지역에 철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27기의 분묘가 알려졌고, 1976년 집녕로의 옛 성터 부근에서 직물류織物類 교장窖藏(움집 같은 구덩이, 사용하던 물건 등을 파묻어 보관했던 곳)이 발굴되었는데, '集寧

路達鷓花赤總管部'라는 글자가 문양으로 직조된 비단이 발견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02년 5월부터 2005년 7월까지 내몽고 고고연구소 등이 발굴에 참여해 약 22,045㎡의 면적에 달하는 성터와 도시유적이 드러났는데 이 유적에서 발견된 도자기들은 국내외 연구자들을 불러 모으기에 그 양과 질에서 충분했다.

집녕로 지역은 원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초원을 잇는 중요한 교통로의 요지가 되었다. 세조 쿠빌라이는 1291년 6곳에 역참을 두고 역로를 개설하게 했는데, 이곳에도 역참이 개설되어 중요한 교통로로 활용된 것이다. 역로의 개설로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물자의 이동도 수월해졌다. 그러나 발굴에서 당시 중원지역의 다양한 도자기들이 출토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리고 1358년경 이 지역에 홍건적이 침입해 들어오자, 1368년 명명의 장군 서달徐達이 두 차례에 걸쳐 집녕로 바로 앞까지 진압을 위해 진격해왔고, 당시 중원으로부터 전래된 자기류를 귀중한 물품으로 인식하고 있던 내몽골지역 사람들이 전란을 피해 피신하면서 땅을 파고 그 안에 도자기나 집기류를 파묻어 두었던 것이다.

이곳에서는 4,800여 건의 자기 파편과 200여 점의 완형 자기가 출토되었으며 그밖에 다량의 도기와 동전 등이 출



내몽고 집녕로 발굴현장



내몽고 元上都 고성유적

토되었다. 당시 중국 남북방에서 만들어지던 유명한 자주요磁州窯, 균요鈞窯, 정요定窯, 용천요龍泉窯, 요주요耀州窯, 건요建窯, 경덕진요景德鎮窯 등의 자기들이 모두 발견되었다. 백자, 청화백자와 분장 흑화자기, 청자 등 다양했다. 그런데 나를 그곳으로 유혹했던 이유는 이들 중 유일하게 고려청자 1점이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사진으로만 봤던 고려청자 연적을 빨리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북경에서 다시 비행기로 후허하오터(呼和浩特)까지 가서야 낡은 고고연구소 내 전시장의 진열장을 사이에 두고 겨우 그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당시 학회에 모인 중국학자들은 옥신각신하며 이 연적의 산지에 대해 토론이 오갔고 대부분 중국산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내 눈엔 너무도 고려청자 그 자체였다.

청자는 집녕로 26호 교장으로 명명된 곳에서 출토되었다. 머리는 용의 모습에 몸체는 거북인 구룡형龜龍形 연적이다. 길이 약 10.5cm, 높이 7.3cm로 자그마한 크기였는데, 차분한 청록색 유약에 태토가 치밀했다. 용의 입술은 위쪽이 뾰족하여 새의 부리 같았고, 뺨 뒤쪽으로는 새의 깃털처럼 양 갈래 갈기가 펼쳐져 있다. 턱 아래로는 긴 수염이 목을 따라 흘러 내렸으나 수염의 끝부분은 떨어져나가고



청자 구룡형 주전자, 국립중앙박물관

없다. 이마 위에 뿔이 있으며 얼굴과 목, 다리에는 비늘이 음각되어 용의 속성을 보여준다. 눈은 철분이 많은 흙으로 점을 찍어 검게 표시하였다.

몸체는 둥글고 풍만한 등을 가진 거북이다. 등에는 육각형의 귀갑문을 음각했는데 그 안에는 “王”자를 무늬로 넣었고 구부러 앉은 형상이다. 입과 등에 난 구멍으로 물을 넣고 따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입에 연꽃 줄기를 물고 헤엄치는 모습으로 줄기 끝에는 연봉과 연잎이 매달려 있다. 이처럼 연 줄기를 물고 가는 형상은 청자 오리형 연적 등에서도 볼 수 있는 표현이다. 마주하고 보니 비슷한 유물들을 종종 본 적이 있었다. 연 줄기를 물고 있는 형상은 간송미술관 소장의 청자 오리형 연적(국보 74호)과 비슷했다. 크기에 차이는 있었지만 구룡의 형상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구룡형 주전자(국보 96호)와도 비슷했다.

본시 도자기란 물건이 그렇게 대양을 건너고 시간을 넘어 이동해왔지만 대체 이 연적은 왜 그 먼 곳에서 발견된 것일까? 그리고 언제 건너간 것일까? 이 같은 상형청자류

는 강진이나 부안을 중심으로 제작되었고 대개 고려 12세기~13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집녕로 유적이 14세기 흥건적 침입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무려 100년 가까이 시간 차이가 나는 것인데, 언제 중국으로 건너가 떠돌다가 거기까지 간 것일까? 그런데 이 연적은 중국산 도자기들과 함께 발견되어 흥미로운 단서가 된다.

연적이 발견된 집녕로 26호 교장 내부에는 도기, 자기, 금속기 등이 함께 매납되었다. 대형의 도기 항아리 안에는 커다란 용천요 청자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 청자 항아리 안에는 하남성 균요에서 만든 반盤과 구리로 만든 병, 도기병 등이 들어 있고, 그 맨 아래서 바로 고려청자 연적이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도자가 함께 나와서 주목된다. 바로 신안선의 유물로 알려진 용천요 청자 항아리이다. 신안선에서는 1323년의 명문이 있는 목간木簡이 같이 수습되어 유물들의 중심시기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유적들을 소비지 유적이라 부른다. 사람이 살아 가고 혹은 죽어 장례를 지내기까지 서로 다른 공간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된 기물들은 유적의 성격을 추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이다. 그런 점에서 여러 점의 도자기들이 함께 발견된 경우 그것들의 가치나 사용계층, 용도 등을 추론하다보면 좀 더 입체적인 시각에서 유물을 바라볼 수 있다.

거란전쟁이 끝나고 송과 고려의 외교관계가 정상화되는 11세기말부터는 고려 비색 청자의 수출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12, 13세기를 거치면서 상인들과 사신들의 교류가 이어졌다. 고려와 뱃길로 가까웠던 중국 절강의 영파나 항주 일대 유적에서는 고려의 고급자기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항주 일대에는 골동품과 미술품을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하니, 상업적 루트를 통해 고려청자는 중국 각지로 전해졌을 것이다. 그런데 원간섭기에 접어들면 보다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고려청자가 중국으로 전래되었다. 13세기 후

반에는 원 황실에 화금청자畵金靑瓷을 바쳤던 기록이 있고, 1213년 아버지와 함께 일가가 몽골군에게 투항하여 하북성 정정현 일대에서 영화를 누렸던 사천택史天澤(1202-1275) 무덤에서도 집녕로와 비슷한 용천요 청자 항아리의 뚜껑이 고려 상감청자 매병과 함께 출토되었다. 사천택묘에서 출토된 고려 상감청자 매병과 용천요 항아리 뚜껑이 동시대품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들은 대략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전반 사이의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14세기 전반 중국 절강 영파지역 수입품에 대한 세금관련 기록을 보면 고려청자의 관세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중국 황실에서는 백자로 중심이 옮겨지면서 경덕진이 부상하기 시작했고, 상대적으로 청자 생산은 쇠퇴하기 시작하여, 그나마 용천요가 명성을 유지하며 국내외 수요를 감당하던 때였다. 따라서 다양한 상감자기나 기물들을 선보이던 고려청자 제품들은 중국내에서 귀하게 취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유로 교통의 요지에 있었던 집녕로 유적에서 드물지만 고려산 청자연적이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이고, 연적의 제작시점이 12세기든 13세기든 중국으로 건너가 일정기간 사용되다가 집녕로에 매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내몽고 집녕로 26호 교장의 기물 출토 상황

마치 헤어진 혈육이라도 만나는 심정으로 달려갔던 내몽골에서의 기억은 오래도록 생생했다. 먼지 날리던 집녕로 발굴현장의 구덩이들과 지금은 적막한 초원으로 변해 버렸지만, 몽골의 점령 후 교통의 요지로 개발된 집녕로 거리는 생기 가득하게 사람들로 붐볐을 것이고, 희고 푸른 도자기들이 그들의 공간에 가득했을 것이다. 그리고 닥쳐 온 전란, 피난... 우리는 가끔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연예인을 보듯 도자기를 바라본다. ‘예쁘다, 멋지다, 우아하다, 신비롭다’라고 할 뿐, 그녀가 어디서 태어나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이는 대로 편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실은 고생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 섰는지, 그 빛나는 눈은 얼마가 강한 삶의 의지인지 관심두지 않는다. 수만 리 국경을 넘고 유전流轉하여 만난 내몽골 초원의 고려청자, 나에겐 사물을 다시 보게 한 경구驚句와 같은 존재였다. 🍵

장남원 이화여자대학교 인문대학 미술사학과 교수

* 이 글의 집녕로 유적관련 상세내용은 필자, 「중국 원대유적 출토 고려청자의 제작시기 검토-내몽고 집녕로 교장유적출토 청자연적을 중심으로」, 『호서사학』 48, 2007, pp.309-339, 참조.



신안해저인양 청자하엽개관, 용천요, 국립중앙박물관

우리나라만의 가구



가구는 생활에 많이 활용하는 도구로 생활공간에 잘 녹아들어 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노트북을 올려놓은 책상, 앉아 있는 의자부터 책을 정리해 놓은 책장, 그리고 잠을 자는 침대까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집에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편안한 마음은 가구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20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내 집 안방의 옷장과 장식장, 침대를 살펴보면 그것들만의 분위기가 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고 오래 사용하였지만 나무의 결면에 조각되어 있는 그 모습은 나를 항상 따뜻하게 반겨준다.

박물관에서 조선가구에 대한 강좌를 들을 때 우리나라의 가구와 우리나라만의 정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구는 삶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며 한 나라의 문화지표라고 했다. 문화적인 요소가 담겨 있어서 우리 가구를 보면 익숙하고 재료와 무늬가 조금 변형되었더라도 편안한 느낌이 든다. 전통적인 가구의 형태는 한옥의 구조와 일치한다. 공간에 맞게 발달해 온 가구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부터 더운 여름까지 사계절별로 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수납장이 발달했다. 조선가구만의 짜임과 마감기술은 가구를 오래 보존하기 위한 필요 기술이었다. 오래되어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분해하려고 했지만 분해가 안 돼서 톱으로 잘라보았더니 엄청나게 촘촘한 짜임과 독특한 못이 있었다고 한다. 안쪽은 넓고 바깥쪽은 좁아서 절대로 바깥에서 못을 뽑을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신기했다.

최소한의 조형원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보이지만 섬세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다고 느꼈다.

조선시대에는 좌식생활을 했다. 그러다 보니 경책상이 발달했다. 그 시대에는 두루마리에 글을 썼기 때문에 경상이라고 불리는 책상을 사용했다. 두루마리를 올려놓았을 때 떨어지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어서 책상 끝이 말려 있다. 책상이라고 불리는 건 윗면이 평평해야 책상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강의 중에서 기억에 남는 책상은 유학자



송시열 책상, 국립청주박물관 보관



빛집, 국립중앙박물관

인 우암 송시열 선생의 책상이다. 그림으로 그려진 책상은 울퉁불퉁해서 무언가를 올려놓고 보거나 쓸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굴곡이 심했다. 책에 책상이 닿으면 책이 닳는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엄청나게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싶었다.

조선가구에 대한 수업을 듣고 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실제 가구의 모습이 보고 싶어졌다. 박물관 기증실을 찾아 ‘김종학 기증 목공예품’을 관람하였다. 설명을 들어보면, 당시 사람들은 가구를 남성과 여성의 생활공간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서류, 문방구 등을 놓아두는 문갑과 작은 책상인 서안 같은 가구들은 단순 간결한 선과 쾌적한 비례로 사랑방 가구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하였다. 안주인의 생활공간인 안방에서 사용한 장, 농들은 의생활과 관련된 것이며, 음식과 그릇을 보관하는 찬탁, 찬장과 같은 부엌 가구는 굵고 간결한 비례로 건강미가 강조된 것들이라고 하였다. 목공예품만 모아 놓은 장소는 색다르게 느껴졌다. 이제는 자주 볼 수 없는 모습이어서 더 그랬다.

관심을 가지고 보니 가구마다 조각되어 있는 세밀한 장식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 전시되어 있는 모습만 봐서 안의 짜임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이음새를 자세히 보면 마감처리가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다. 우리의 생활 주변에 있는 의자나 옷장을 자세히 보면, 면이 이어지는 끝 쪽이 거칠게 마감처리가 되어 있거나 이음새의 장치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조선가구는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시골의 할머니 댁에 가면, 오래된 가구들에서 따뜻함이 느껴진다. 아마도 우리나라 가구에서 느껴지는 편안함 때문인 것 같다. 순수예술품과 공예품의 큰 차이는 그 가구의 사용 유무에 달려 있다고 한다. 공예품인 가구는 사용하는 시간이 더해지면서 완성이 된다. 가구는 사람이 만들고 세월이 완성하는 도구이니 우리만의 가구에 우리만의 정서가 합쳐진 모습이 오래도록 간직되길 바란다. 🐼

강소영 회원



경상, 국립중앙박물관

그것을 알고 찍었더라면



병산서원

박물관 학교에 입학하자는 친구의 말에 아무 생각 없이 등록한 강의였다. 학교 때처럼 그저 선생님 말씀 열심히 경청하는 마음으로 지켜온 자리지만 강의가 재미있으면 재미있을수록 잊어버리는 나이를 탓하며 지내온 7개월이었다. “그래, 듣는 것만 해도 즐거우니 그걸로 만족하자.”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도 내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봉렬 교수의 한국건축 강의를 들은 후 관련 서적을 찾아 보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다녀왔던 건축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지인들과 함께 병산서원과 도산서원에 갔던 적이 있다. 유럽여행을 계획할 때는 여러 권의 책을 읽고 그들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 알아보고 떠났던 것에 비해 우리 것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면서도 우리 문화재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떠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렇게 떠난 여행길에서 만난 병산서원은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만대루에서 바라보는 산의 고즈넉함이 마음에 와 닿는 곳이었다. 늦가을의 정취와 한적한 주위환경도 아름다움을 배가시켜주었던 것 같다. 사진도 여러 장 찍었는데 건물

자체보다는 남쪽을 향해서 자꾸 셔터를 누르게 되었다. 그저 본능적으로 좋은 사진이 될 만한 곳을 향해 카메라를 돌리게 되는데 친구들 인증샷을 제외하곤 모두가 남쪽을 바라보는 사진이었다.

허와 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집합적 건축 형태가 병산서원의 특색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집합적인 형태가 안에서 바깥으로 나타나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형태가 연속적이며 중첩적이라고 한다. 건물과 건물이 중첩되고 건물과 마당이 중첩되고 다시 바깥의 자연경관이 중첩되는 장면이 연속적으로 펼쳐진다는 외향적 집합형태를 보인다고 한다.

아! 이러한 것을 알고 그곳에 섰다면 훨씬 더 깊은 감동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추후에라도 알고 나니 왜 그렇게 바깥을 향해서 사진을 찍었는지 이해가 가고, 당시 건축가의 생각을 짐짓 읽어낸 것 같아 흐뭇하기도 하다. 공허한 건물로 보이는 만대루가 자연과 인공의 관계 속에서 비어 있음으로 가득 찬 프레임이 되었다는 대목이 너무도 가슴에 와 닿는다.

도산서원에 다녀온 사진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우리 문화유적을 보겠다고 달려갔지만 각도와 빛과 형상에만 치중해 찍은 사진들은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다. 도산서원 배치도를 보면서 모르고 찍은 사진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이나마 살려볼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퇴계가 관여한 건물은 도산서당, 기숙사인 농운정사, 제 2기 숙소인 역락재뿐이라는 점이다. 퇴계가 세상을 뜬 직후에 만들어진 서원 일곽은 제자들의 솜씨로, 2개의 별도 건축이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에 유념해야 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거닐 때도 이리 저리 놓인 담장이 웬지 어색하기도 하고 새롭게 보였는데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보니 먼저 만들어진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를 찍은 사진이 훨씬 다정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도산서원의 마루는 부엌, 온돌방, 마루로 이루어진 3칸 형식에서 확장하여 보통의 우물마루가 아닌 땅바닥이 내려다보이는 줄마루로 만들었다. 본체에는 두터운 사각기둥을 세웠으나 확장부임을 표시하기 위해 가는 팔각기둥을 세운 것도 우리는 놓치고 말았다. 또한 농운정사가 완벽한 대칭구조를 가진 멋진 건물임을 알았더라면 그 점을 부각시킬 수 있게 양 옆 매스를 모두 집어넣는 사진을 찍었더라면 좋았겠다. 부연하자면 평면구성은 대칭이지만 입면의 형상은 비대칭으로 문과 창 모습은 다채롭다는 점은 필요에 의해 그리 된 것이겠지만 미적으로도 매우 훌륭해 보인다.

이렇듯 예전엔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바라보며 조금씩이나마 알아가는 기쁨을 얻게 되었으니 소개한 지인에게 고마움을, 열심히 강의해준 학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

김혜영 회원



도산서원

적의에 대삼작노리개 달고

— 국립고궁박물관



영친왕비 적의

경복궁 안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은 2005년 8월 15일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의 왕실유물 4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어보, 옥책, 병풍, 제기 등은 물론이고 천상열차분야지도 같은 과학유물과 의약, 복식, 장신구도 많습니다. ‘기록의 나라’라 불리는 조선답게 각종 의궤와 승정원일기, 일성록 같은 기록물 역시 빠질 수 없지요.

그 가운데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왕비의 복식과 장신구들이었는데 특히 ‘적의翟衣’라 불리는 대례복이 단연 돋보였어요. 적의는 현재 단 2점만 남아 있는데, 고궁박물관에 전시된 옷은 1922년 영친왕비가 순종을 알현할 때 입었던 진한 푸른색 적의랍니다. 이 옷은 도쿄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가 1991년에야 우리나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세종대학교 박물관에는 순정효황후가 1919년 영친왕의 혼례를 위해 만든 적의가 남아 있어요. 적의翟衣는 꿩무늬(적문翟紋)를 넣어서 짠 옷감으로 만드는데, 나라의 큰 제사나 혼례 또는 책봉 때 입는 가장 격이 높은 예복이에요. 순정효황후의 옷에는 148쌍의 꿩무늬가 있고, 붉은색 깃과 소매에는 용무늬가 있어요. 영친왕비의 옷에는 138쌍의 꿩과 168개의 오얏꽃 무늬가 있고, 붉은색 깃과 소매에는 봉황무늬가 있답니다. 조선시대에는 원래 붉은색 적의를 입었는데, 대한제국 이후에 진한 푸른색으로 바뀌었어요. 왕비가 적의를 입는 행사 때 왕은 면복을 입는답니다.

옷을 잘 갖춰 입으려면 당연히 안에 입을 옷들과 머리장식, 신발 같은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요. 그럼 왕비가 어떤 순서로 옷을 입는지 따라가 볼까요. 먼저 속속곳, 속바지, 속저고리와 단속곳 같은 속옷을 갖춰 입어요. 다음으로 너른바지, 무지기치마, 대삼치마를 입어요. 이렇게 여러 겹을 입어야 치마가 풍성하게 부풀어



영친왕비의 대수에 사용된 비녀와 땡기

보이거든요. 그 위에 남색 대란치마와 자주색 대란치마를 입어요. 남색과 자주색이 모두 보이게 두 치마 길이에 차이를 둔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입은 것 같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삼회장저고리와 장식용 앞치마처럼 생긴 전행옷치마, 당의를 더 입어야 해요. 그 위에 가운데처럼 생긴 중단을 입고 나서야 비로소 적의를 입어요. 적의 위에도 여러 장식을 걸치는데요. 후수가 달린 대대를 매고 폐슬로 무릎을 가린 다음 어깨에 하피를 걸치고, 옥대를 차고, 패옥을 옆구리에 걸어요. 푸른색 버전인 말과 역시 푸른색 신발인 석을 신고 손에는 규를 들어요.

이제 머리 장식이 남았어요. ‘큰 머리’라는 뜻의 대수머리를 해야 하는데요. 어깨까지 내려오는 삼각형 모양의 크고 높은 가체에 화려한 비녀들을 꽂은 머리장식이에요. 이마 위에는 짧은 진주동곳, 바로 위에 용잠을 꽂고, 그 위에 땡기의 일종인 대요를 둘러요. 땡기 위의 동그랗게 솟은 부분에는 둥근 떨잠 2개, 나비떨잠 1개를 꽂고, 뒤쪽에 가란잠, 꼭대기에는 봉황꽃이 2개, 옥으로 만든 봉황꽃이 1개,

꼭대기에는 칼 모양의 진주장잠 1개를 꽂습니다. 가체 아랫부분에는 기다란 후봉잠 2개를 꽂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머리장식용 액세서리들을 보관하는 상자가 무려 138개나 되었다고 해요. 영친왕비의 유물 가운데 대수용 가체가 있는데 검은색 나무 비녀를 각각의 자리에 꽂아두고 이름표도 달아두었어요. 그래야 사용할 때 정확한 위치에 맞는 액세서리를 꽂을 수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옷을 다 챙겨 입었고, 머리 손질도 끝났으니 이제 나머지 장신구도 챙겨야겠지요. 대례복인 적의에는 대삼작노리



적의 차림의 영친왕비

개를 달았어요. 지금 남아 있는 영친왕비의 대삼작노리개는 나뭇가지 모양의 천연 산호에 매화나무를 조각한 산호노리개, 하얀 옥을 나비모양으로 투각한 판에 금으로 몸체를 만들고 옥과 비취, 진주, 물총새 깃털로 장식한 나비 두 마리를 연결한 백옥쌍나비노리개, 호박의 한 종류인 밀화를 부처님의 손 모양으로 만들고 모란꽃과 박쥐 두 마리를 조각한 밀화불수노리개입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노리개를 달았으니 이제 반지만 끼면 되겠네요. 영친왕비의 쌍가락지는 호박(밀화), 자마노옥, 호박(금패), 옥(비취)으로 만든 것들이 남아 있어요. 네 종류 모두 여름에 끼는 반지였고, 겨울에는 주로 금반지를 끼었다고 하네요.

이런 장신구들을 사용하고 난 뒤에는 보자기로 잘 싸서 전용 상자에 넣어 보관했어요. 상자는 얇은 나무판으로 만들어 종이와 비단을 발랐는데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받침대를 만들기도 하고, 솜으로 만든 조그만 방석을 받치기도 했어요. 뚜껑 안쪽에는 번호나 장신구 이름을 적어 놓았고요. 자마노쌍가락지를 보관했던 상자를 보면 나비, 벌, 새 등을 오색실로 짜 넣은 녹색 비단을 바르고 뚜껑 가장자리에는 같은 무늬를 수놓은 갈색 비단으로 선을 두르고 모서리에는 갈색 명주로 테두리를 대었어요. 뚜껑에 상아로 만든 메뚜기를 끼운 오색끈을 달아 상자를 잠글 수 있도록 했어요.

이토록 복잡하고 까다로운 옷과 장신구를 챙기고 제대로 쓰도록 도우며 다음 행사를 위해 고이 보관하는 일은 궁녀들의 몫이었어요. 장신구 상자나 대수머리용 가체에 붙은 메모와 기록들은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자기 일을 했는지를 보여준답니다. 🐼

김문숙 회원



밀화불수노리개와 보관용 보자기



영친왕비 화조점문 지환상자



노리개

신유총석정

新遊叢石亭

묵향 짙은 먹그림이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전시 “우리 강산을 그리다: 화가의 시선, 조선시대 실경산수화”입니다. 전시장 입구에는 금강산의 비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널따란 벽면에 가득한 ‘일만이천봉’은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는 부감시에 아찔해지며, 산수화 속으로 화가의 눈길과 발길을 따라 갑니다.

“정자는 통주(현 통천) 북쪽 20여 리에 있다. …봉우리의 절벽에 가닥돌(條石)이 즐비하게 서 있는 바 방주(方柱)와 같고…방직(方直)하고 평정(平正)한 것이 마치 먹줄을 띄워 깎아 세운 듯하며 크고 작은 차이가 없다. 또 해안에서 10여 척 떨어져서는 돌기둥 넷이 서로 떨어져서 물 가운데 서 있는 바 사선봉(四仙峯)이라 일컫는다. 모두 가닥돌로 몸체를 삼아 수십 가닥을 합쳐 한 봉우리가 되었으며 봉우리 위에는 작게 자란 소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뿌리와 등치가 늙고 쭈그러들어 나이를 알 수 없다. …이는 재주 있는 장인이 치고 쪼아 만든 것이 아니라 대개 천지가 나누어지던 처음에 원기(元氣)가 모인 바인 것이다. …참으로 괴이하다. 그 총석이라 이름 지어진 까닭을 알 만하겠다.” 『동국여지승람』

김하중, <월성루망전면전경>, <해산도첩>, 국립중앙박물관



관동팔경 중에서 으뜸이라는 칭송에 걸맞게 많은 시인묵객이 <총석정기>, <총석정도>를 남겼습니다. 글과 그림의 제목만 보면 정자가 주인공 같지만 실제와는 다릅니다. 총석정은 이름을 내어주고 절경이 한눈에 보이는 명소를 지키는 단역입니다. 수백 년에 걸쳐 있는 여러 <총석정도>를 엮비슷한 구도끼리 짝을 지어가며 살펴봅니다.

1711년 36세 정선이 금강산을 첫 방문하고 <신묘년풍악도첩>을 만듭니다. 하얗게 반짝이는 암산이 아스라한 <단발령망금강산도>로 유명한 화첩입니다. 이후에도 금강산을 찾은 겸재는 많은 <총석정도>를 그렸는데 넷이어야 할 석주를 셋만 남기거나, 비슷한 높낮이는 변주를 해서 실재와 똑 닮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쓰고 버린 붓이 무덤을 이루었다는 대가의 비법은 '기억의 연금술'인가 봅니다. 1745년과 이듬해 강원도 지역을 순력한 문관들이 당시 유행을 따라 제작한 시화첩 <관동십경도첩>의 화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장소가 바뀌어도 구성과 색상의 변화가 크지 않은 고만고만한 그림들입니다. 원형구도에 지리적 특징을 담아내고 크레파스처럼 선명한 녹색과 적색을 입혀 산줄기와 단풍을 표현했습니다. 실타래 같은 산세와 찰랑찰랑한 물너울의 그림 중에서 <총석정도>만 원형구도를 비껴잡니다. 기둥이라기에는 한참 모자라 막대기 같은 사선봉과 하얗게 호분을 칠한 고사리 손 모양의 포말이 귀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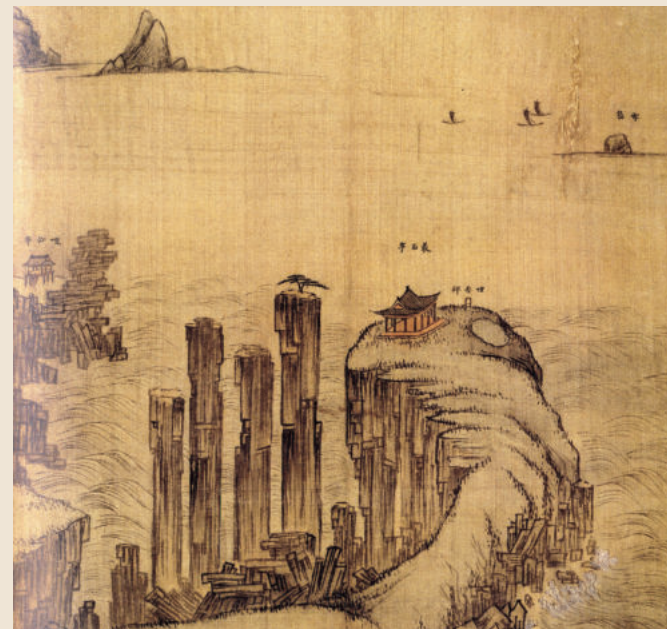
1788년 김홍도와 김응환은 정조의 어명으로 50여 일간 관동과 금강산 지역을 여행하며 봉명사경奉命寫景을 합니다. 단원이 유탄이 아닌 묵필만으로 빠르게 제작한 초본은 100여 폭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34면의 도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다양한 준법과 수지법樹枝法이 자유로이 적용된 화면은 채색을 대신한 수묵음영법도 활용되어 사진을 찍은 후 베껴 그렸나 싶게 사실적입니다. 디테일에도 충실한

단원의 '드로잉'은 사라진 어람용 <해동명산도첩>의 행방을 더욱 궁금하게 만듭니다.

<해악전도첩>에는 차비대령화원 김응환의 그림 총 60점이 있습니다. 수직과 수평의 갈필에, 화면을 꽉 채운 구성이 특징인 그의 화법은 "산수에 정통하다.", "정밀한 그림에 맞지 않다."는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진회색조의 격렬하고 중중첩첩한 파도나 활처럼 휘어진 소나무를 보면 비가 퍼붓기 직전 어둡고 바람이 세찬 날을 화폭으로 옮겼다고 느껴집니다. 정조는 김홍도와 김응환의 화첩을 조선의 자연주의와 표현주의 명작집이라 평했을 것입니다.

지리학자인 정상기의 증손자로 관직 생활을 하지 않은 문인화가 정수영은 1799년 시화첩을 완성합니다. 금강산을 스케치하며 유람한 후 몇 개월에 걸쳐 직접 기행문을 쓰고 그림을 그렸답니다. 한강 주변 풍광을 담은 15미터 넘는 길이의 <한임강유람도권>도 그의 작품입니다. <해산첩>은 수채화처럼 경쾌한 색감의 오밀조밀한 산수로 금강산의 눈부신 가을을 선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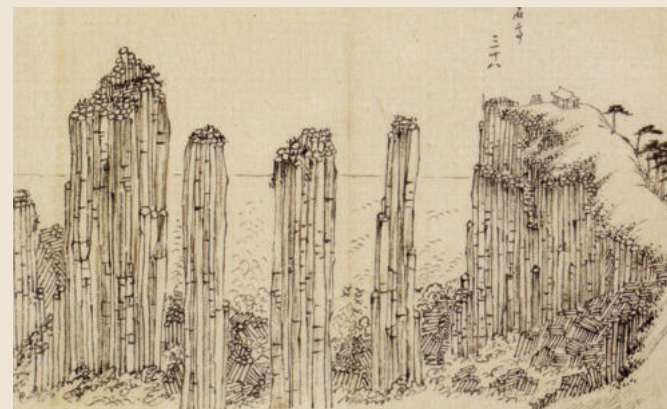
김하중은 아버지가 김득신, 작은 할아버지가 김응환, 형제들도 화가인 조선후기 명문 화원 가문 출신입니다. 눈 감고도 그림을 그렸을 것 같은 그는 겸재와 단원의 영향 속에서도 자신만의 스타일이 뚜렷하다고 인정받습니다. 주문자의 사실주의적 서화관과 24세 화가의 개성이 녹아든 <해산도첩>은 19세기 유일한 설악산 실경산수화를 포함하며 이전 금강산 명승명소도와는 전혀 다른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재, 실험적인 구도가 주는 참신함과 화면에 스며든 생기 가득한 청록색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는 열고 질게, 가늘고 굵직하게 먹선을 조율하여 공간감을 살리고, 운무를 통해 대기원근법도 구사해냅니다. 서구회화기법의 안착은 전통적 산수화에서 근대적 회화로의 변모를 보여줍니다.



정선 <총석정도>, <신묘년풍악도첩>, 국립중앙박물관



작가 미상 <총석정도>, <관동십경도첩>,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홍도 <총석정도>, <해동명산도첩>, 국립중앙박물관



김응환 <총석정도>, <해악전도첩>, 개인소장



정수영 <총석정도>, <해산첩>, 국립중앙박물관



김하중 <환선구지망총석>, <해산도첩>, 국립중앙박물관



작가 미상, <총석정도>, 국립중앙박물관

1557년 <총석정도>는 현존하는 관동도 중 연대가 가장 올라갑니다. 아랫부분은 희고 윗부분은 어두운 기둥들이 해금강의 호위무사인 듯 삼각대열을 이루어 화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앞서지만 독창적인 표현과 파격적인 구도에서는 가장 현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찬히 들여다보면 기둥 사이의 파도치는 바다, 기둥에 올라앉은 새와 작은 소나무 등 경관을 관찰한 결과가 드러나지만, 초현실적인 첫인상은 쉬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물소리, 바람소리가 넘치는 전시장을 나서며 1920년에 제작된 <총석정절경도>를 떠올립니다. 창덕궁 회정당의 부벽화로 형식, 주제, 화풍, 크기 등 여러 면에서 기존 궁중장식화나 진경산수화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새삼 아주 오랫동안 총석정에 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달랐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시인이 되어 펜을 들고, 화가가 되어 붓을 쥐듯, 마음 속에 여러 <총석정도>를 담고 또 담습니다. 실제로 가보고 싶다는, 기약이 요원한 바람 때문일까요. 일상적인 광경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도도히 흐르는 한강과 주변을 따라서 끝 간 데 없이 도열한 아파트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뚝 선 모습이 21세기 총석들이다 싶습니다. 지금, 여기의 '신총석정도'를 보고 또 봅니다. 🍵

문정원 회원

김규진, <총석정절경도>, 국립고궁박물관



박물관
특/설/강/좌

44기 박물관 특설강좌

40여 년 전통의 특설강좌는 우리 역사와 예술에 대해 전문강사진에게 배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강좌입니다.

모집 안내

모집인원	화요일 : 200명 목요일 : 200명
강좌내용	역사학, 인류학, 고고학, 미술사, 불교미술, 사상사, 박물관학, 전시실 교육 및 고적답사
수강기간 및 시간	2020년 3월~12월 (매주 1회, 13:00 ~ 17:00)
교육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소강당
참고사항	박물관 특설강좌 수료 후에도 계속적으로 박물관 연구강좌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0년 1월 7일(화)부터 선착순 마감
수강료	570,000원(1년 과정)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 www.fnmk.org
	현장접수 :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101호



특설강좌 강의장면



전시실 교육



고적답사

2020

박물관
연/구/강/좌
테/마/강/좌

박물관 연구강좌

연구강좌는 특설강좌 수료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의주제	수강시간	강사
조선시대의 역사 I	1.3주 화요일 10시~12시	한명기(명지대)
우리땅, 도시의 역사와 문화	1.3주 화요일 14시~16시	소재구(前 문화재청)
중동 - 이슬람 문명과 역사	2.4주 화요일 10시~12시	이희수(한양대)
인물로 보는 한국사 I	2.4주 화요일 14시~16시	윤선태(동국대)
서양사 깊이읽기 I	1.3주 수요일 10시~12시	박재욱(서울대)
르네상스와 바로크 미술	2.4주 수요일 10시~12시	정은진(이화여대)
우리가 모르는 중국 - 중국사 인물열전	1.3주 목요일 10시~12시	장대영(동양대), 조영현(고려대) 김선자(연세대), 조인수(한예중)
한국근현대미술사	2.4주 목요일 10시~12시	권행가(성균관대), 전유신(중앙대)

박물관 테마강좌

회원과 일반인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의주제	횟수	시간	강사
그림으로 읽는 시대 정신 I	15강	3월~7월, 매주 수, 14시~16시	김향숙(홍익대)
그림으로 읽는 시대 정신II	15강	8월~12월 매주 수, 14시~16시	김향숙(홍익대)
예술, 역사를 만들다	8강	3월~4월, 매주 목 10시~12시	전원경(미술사)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과 서사	12강	5월~7월, 매주 목, 10시~12시	최병진(한국외대)
예술, 인간을 말하다	15강	9월~12월, 매주 목, 10시~12시	전원경(미술사)

* 연구강좌, 테마강좌 신청방법과 강좌별 자세한 강의주제와 내용은 홈페이지(www.inmk.org) 또는 블로그(https://blog.naver.com/inmk1974)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햇빛가리개살 꼭지, 백제실

네가 있는 이유는

뭐지?
 고개를 들이밀고
 들여다보게 되는
 손가락만 한 금동 장식품
 용이 수염을 휘날리며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한데
 의식용 양산 살에 꽃은 장식품이란다
 아하~
 네가 있는 이유는
 팽팽하게
 위엄 있게
 찬란하게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俞相玉, 柳昌宗, 金正泰 회장을 거쳐 2017년 11월 申聖秀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申聖秀
 副 會 長 | 尹在倫 朴殷寬
 理 事 | 郭東錫 金錫洙 金信韓 南秀淨 朴善正 朴禎原
 禹燦奎 尹碩敏 李玉卿 趙顯相 崔杜準 許榕秀
 洪錫肇 洪政旭 裴基同
 監 事 | 金教台 李教祥
 事 務 局 長 | 李在範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 원, 청룡 오십억 원, 백호 삼십억 원, 주작 십억 원, 현무 오억 원, 천마 일억 원, 금관 오천만 원, 은관 삼천만 원, 청자 일천만 원, 백자 오백만 원, 수정 이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백호회원 삼성전자	金南延 金承謙 金信韓 金芝延 都炯泰 朴炳燁 朴容允 朴禎原 裴東眩 宋英淑 禹燦奎 俞相玉 李圭植 李明姬 李玉卿 李周成 李旿炘 全裁範 鄭明勳 鄭在鳳 崔杜準 최철원 許允秀 許允烘 曠 憬	(주)동훈 대표이사 서릉지주(주) 대표이사 의장 대성산업가스 사장 (주)컨셉 대표 갤러리현대 대표이사 팬택&큐리텔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두산메카텍(주) 부회장 창성그룹 부회장 가현문화재단 이사장 학교재 대표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경신금속(주) 대표 일우재단 이사장 서울옥션 부회장 세아제강 부사장 MashupAngels 대표 금강공업(주) 사장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주)한섬 (주)동남유화 회장 MIGHT&MAIN(주) 사장 (주)ALTO · (주)ALTEK 사장 GS건설 부사장 회원	金英姬 金載勳 金鍾漢 柳芳熙 柳智勳 朴善正 朴英柱 朴知原 徐載亮 成來恩 成彌鎬 宋秉峻 宋 哲 辛炳讚 梁洪碩 柳昌宗 尹賢慶 李教祥 李廷龍 林鍾勳 張善霞 張仁宇 曹榮峻 崔雄善 崔正勳 韓惠舟
---------------------	---	---	--

주작회원 金正泰 尹光子	하나금융그룹 회원		
---------------------------	--------------	--	--

천마회원 金錫洙 南秀淨 朴殷寬 孫昌根 申聖秀 申憲澈 尹碩敏 尹章燮 尹在倫 鄭溶鎭 趙顯相 千信一 許榕秀 洪錫肇 洪政旭	동성식품(주) 회장 (주)썬앳푸드 사장 (주)시몬느 회장 소장가 고려산업(주) 회장 SK에너지 태영그룹 회장 전 정보문화재단 이사장 정보문화재단 이사장 신세계그룹 부회장 효성 총괄사장 세중문화재단 이사장 GS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주)BGF리테일 회장 올가니카 회장		
--	--	--	--

금관회원 姜德壽 庚 圓 權俊一, 具在善 金教台	(주)STX 극락사 주지 Actium Group 부회장 삼정회계법인 대표	은관회원 姜院基 金寧明	오리온 대표 (주)예을 이사장
--	---	---------------------------	---------------------

회원 영풍제약 부사장 (주)종합전기 대표 (주)풍산주택 회장 (주)한탑 사장 대신제분(주) 부사장 아성다이스 부사장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회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주)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광성기업(주) 대표 (주)게임빌 · (주)킵투스 대표이사 성문출판사 대표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대신증권(주) 사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동화약품 상무 서울가든호텔 사장 가나아트갤러리 대표 한미헬스케어(주) 대표이사 (주)교원 상무 선인자동차 · 고진모터스 대표이사 우양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주)인팩 대표이사 이도 대표이사 진양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	
--	--

청자회원 姜承模	KP그룹 부회장
--------------------	----------

高基瑛 具東輝 具本權 具本商 具本赫 具瑗姬 鞠賢永 權志德 權宅煥 金建昊 金京姬 金寧慈 金大煥 金東官 金東準 金斗植 金旼洙 金相潤 金性南 金性完 金世淵 金永珷 金榮秀 金英惠 金裕錫 金侖壽 金恩惠 金益煥 金仁順 金載烈 金正宙 金宗學 金知爰 金志泰 金兌炫 金澤辰 金賢銓 南兌勳 柳重熙 문윤희 閔俊棋 朴環鎭 朴仙卿 朴宣注 朴世昌 朴漢正 朴載相 朴載蓮	(주)금비 부회장 (주)LS 상무 LS-Nikko동계련(주) 이사 LIG넥스원(주) 부회장 에스코홀딩스 대표이사/CEO 한성플랜지 이사 세기상사(주) 기획팀장 아이에스동서 대표이사 신대양제지(주) 대표이사 삼양사 상무 (주)피어나조경 대표이사 (주)예을 명예이사장 (주)슈페리어·슈페리어홀딩스(주) 사장 한화 큐셀 전무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삼익악기 사장 유리자산운용 경영기획실장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스무디킹 Global CEO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김&장 법률사무소 2014아시아게임 조직위원장 제일화재 이사장 (주)해남 대표이사 지리산 문화관 관장 지알엠주식회사 상무 한세실업(주) 대표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주)NXG 대표이사 서양화가 한세엠케이 전무 태아산업(주) 부사장 성신양회(주) 부회장 (주)엔씨소프트 대표 히든베이호텔 사장 국제약품 대표이사 사장 (주)퓨처플레이 대표이사 아주호텔엔리조트 대표이사 리인터내셔널법률사무소파트너변호사 진주햄 대표이사 부사장 웅인대학교 총장 영은미술관 관장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 V&S자산운용 부장 성곡미술관 이사	林廷彬 林正遠 朴俊泳 朴海春 方正梧 裴允植 白晋宇 徐東姪 薛允碩 孫元洛 申硯均 辛永茂 愼昌宰 沈宗玄 楊仁集 梁汰會 魚湖善 吳勝敏 吳治勳 柳東鉉 俞承熹 柳英芝 尹 寬 尹普鉉 尹勝鉉 尹楨善 李甲宰 李圭鎬 李起雄 李萬圭 李美淑 李常宰 李善眞 李秀卿 李承勇 李英純 李鈴子 李容濬 李宇成 李宇鉉 李雲卿 李胤基 李仁洙 李宰旭 李柱翰 李濬宇 李芝衡 李哲雨
--	---	--

(주)신원 부회장 재미교포 본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TV CHOSUN 전무 (주)한국체인모터 대표이사 (주)동성코퍼레이션 전무 회원 대한광통신 사장 (주)경동홀딩스 상무 아름지기 이사장 법무법인 세종 대표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주)진로 대표이사 사장 (주)비상교육 대표이사 골드만삭스 상무 동일산업(주) 대표이사 사장 대한제강(주) 대표이사 사장 인성산업(주) 전무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관장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BlueRun Ventures 대표 호림박물관 이사 (주)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주)성보화학 대표이사 삼일회계법인 전무 (주)코오롱 전무 열화당 대표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삼표산업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목금토갤러리 관장 삼보모터스 프라코 상무 (주)에이티넵파트너스 대표이사 한국미술협회 회원 (주)경농 부사장 (주)이테크건설 부사장 OCI 사장 남양유업 전문위원 그랜드힐튼호텔 사장 수원대학교 이사장 전남일보 사장/발행인 (주)삼익유니버스 이사 홍아해운 부사장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사 롯데쇼핑 총괄사장	李學俊 李海珍 張同鎭 張升準 洋賢財團 田永采 田潤洙 鄭瑛海 丁恩美 鄭義宣 鄭在昊 鄭志伊 趙炳舜 曹榮美 曹在顯 趙希卿 陳在旭 千碩圭 崔世勳 崔善默 崔仁善 崔再源 崔昌和 · 鄭惠淑 崔惠玉 한국도로공사 韓碩炫 韓榮宰 咸泳俊 許正錫 許辰秀 玄明官 玄智皓 胡鍾一 胡昌成 洪範碩 洪碩杓 洪誠杓 洪元福, 金根鎬 洪正國 洪正道 洪禎寅 洪進基 洪振碩 黃仁奎 Joseph Bae Mark Tetto	크리스티코리아 대표 NAVER 이사회 의장 (주)파워맥스 사장 MBN 매일경제 사장 (주)한길봉사회 이사장 중국미술연구소 대표 회원 블룸앤코 대표 현대자동차 부회장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현대무백스 전무 성암고서박물관장 경동소재 대표이사 (주)가온소사이어터 대표 하나유비에스 대표 천일식품(주) 대표 (주)카카오 CFO 회원 SK(주) 부회장 회원 · 자원봉사 프로듀서 노루홀딩스 회장 (주)오투기 회장 일진홀딩스(주) 대표이사 SPC(주) 부사장 (주)화승R&A 부회장 호성홍업 회장 (주)더벤처스 대표이사 남양유업(주) 부장 고려제강 부사장 고려상사(주) 부회장 회원 (주)BGF리테일 부사장 중앙미디어네트워크 대표이사 사장 중앙홀딩스/JTBC, 전략담당팀장 마리오아울렛 이사 남양유업(주) 상무 CNCITY에너지 대표이사 KKR Asia Limited 대표 TCK Investments 전무
---	---	--

* 2019. 11. 30. 기준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